

숨은그림찾기 < 76 >



찾아보세요! 종이에 바늘, 사람 얼굴, 셔플, 집자리, 컵, 고추, 알파벳 A자, 열대어

반대 방향

지방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역에서 내려 집에 들어왔다. 귀가한 남편의 얼굴이 수척해 보이자 아내가 물었다. "여보, 당신 몸 괜찮아요?" "조금은 컨디션이 안 좋아." "왜요? 지방 출장 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기차에서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앉아 왔더니 멀미가 나는 것 같아." "바보 같은 사람, 맞은편에 앉은 사람한테 잠깐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하지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거든."



지나주 정답

고추, 양주잔, 몽당연필, 제비, 셔플, 열대어, 상어, 바늘, 다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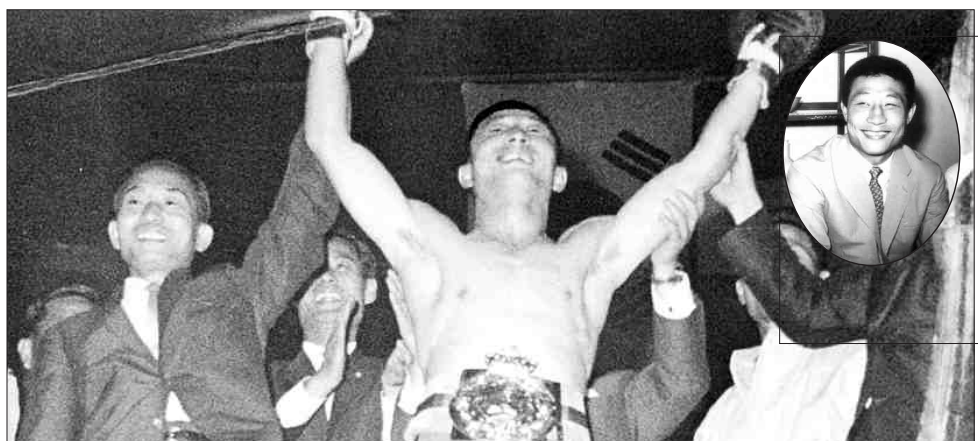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조진희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이미숙 <광주시 서구 금호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97년 6월 10일 한국 첫 세계챔프 김기수, 간암 별세

한국 최초 '세계에서 제일 주먹 센 사람', 60년대 최고 인기를 누리며 프로 복싱을 국민 스포츠로 끌어올린 장본인. 한국 최초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으로 김기수에 따라붙는 수식이다. 10년전인 지난 1997년 6월 10일 김기수씨가 간암으로 숨졌다. 김씨는 함경도 북청 태생으로 여수에 월남, 당시 여수체육관을 운영하던 방호남을 만나 운명적 복싱을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도쿄아시아계급 금메달을 따고 프로로 데뷔,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66년 6월 25일 열린 이탈리아 베베누티와의 세계 챔피언전은 당시 큰 국민의 관심사였다. 지난 2002년에는 한국과 폴란드, 스페인전을 지켜보며 열광했다면 그때 국민들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였다. 그는 '치고 깨안으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다. 15라운드 끝난후 한국 부심은 72-69로 도전자 김기수를, 이탈리아 부심은 68-72로 챔피언 베베누티의 우세를 판정했다. 주심 리처드 포프의 판정이 승부를 결정짓는

순간. 장내어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다. "베베누티 68", "김기수 칠십..." 마지막 숫자 4는 관중석의 함성에 물었다. 최초 한국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열세가 예상되던 타이틀전인데다 한국전쟁 발발 16주년이 되는 날 이문 승리와 기쁨은 더욱 컸다. 김기수는 당시 "승리한 뒤 특별석으로 인사를 갔는데, 당시 대통령 좌석 앞 탁자에 놓인 큰 재떨이에 담배꽂이가 수북했다"고 말했다. 김기수는 타이틀 획득 1년 11개월만인 68년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3차방어전에서 산드로 마징기에게 타이틀을 내주기까지 국민의 우상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동양타이틀마저 빼앗겼다가 와신상담 4개월만에 리턴매치에서 승리한 뒤 69년 글러블을 벗었다. 프로 전적 67전 63승 2무2패.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김씨는 "매맛고 피오움을 흘리며 번 돈을 허술하게 쓸 수 없다"는 생활 태도로 알뜰하게 살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6월 25일 WBA 주니어미들급 세계 챔피언에 오른 김기수의 오른손을 들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원내는 69년 은퇴당시의 김기수. <광주일보 자료사진>

/김지흥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67. 지난달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여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한국 여배우가 세계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을 탄 것은 지난 1987년 '씨받이'로 강수연이 베니스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20년만입니다. 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동양계 여배우로는 홍콩 장만위(2004년)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① 전도연 ② 이영애 ③ 전지현 ④ 송혜교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금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일 수박권 1개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6일(음 4월 21일 辛未)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date June 6th (辛未). It list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provides a brief prediction for each, including mentions of health, relationships, and career. For example, for the Rat (子), it says '36년생 결혼은 신중하게 실행은 빠르게 진행하라. 48년생 어린이 안보이니 두루두루 살펴봐라. 60년생 숙안은 이르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 72년생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리라. 84년생 잔치 집에 가지만 마음은 무겁다. 행운의 숫자: 01, 35'.

A large 15x15 grid for a 'Kwangju Jeonnam Jijangbaduk Taehui' (광주 전남 직장바둑대회). The grid contains numbers from 1 to 165, representing a Go board layout. A small diagram shows a Go board with a '참고도' (reference diagram) and a '8집반을 남겨 조선대학교에 1승을 보태고 우승을 향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secured a favorable position for the next match by leaving 8 stones on the board and securing a 1-0 lead for Chosun University).

Go board analysis section titled '패배로 직결된 한번의 실수' (A single mistake that led to defeat). It discusses a specific move on a Go board, mentioning '이 바둑은 결국 국 막판에 행운이 따라준 이한재 4단이' (This Go game was ultimately decided by Hanjae 4-dan, who was lucky in the endgame). It includes a '참고도' (reference diagram) and a 'KYOBO 교보생명' logo.

Baduk (Go) news section titled '바둑 소식' (Baduk News). It reports on a '한국 6명, LG배 16강전 진출' (6 Koreans advance to the 16th round of the LG Cup). It mentions a match between Hanjae 4-dan and Lee Minjae 4-dan, and a match between Hanjae 4-dan and Lee Minjae 4-dan. It also mentions a match between Hanjae 4-dan and Lee Minjae 4-dan.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It features a photo of a man and a woman,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s a '수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Even if the skin is bad, there are no scar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www.cafe.daum.net/sajoo114' and '011-632-6121'.

A table of language learning resources. It has four columns: 1. '굿모닝 잉글리쉬 <920>' with 'I'd like 2 pounds of pork' and '돼지고기 2파운드 주세요'. 2. '오하우유 니혼고 <920>' with 'どうもご無沙汰(ぶさた)しております' and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 '니하오 쑹구위 <111>' with '早上跑步是我的习惯' and '아침에 조깅하는 것은 나의 습관이야'. 4. '한자 이야기 <537>' with '塞翁之馬 (새옹지마)' and '요새 새, 늙은이 옹, 어조사 지, 말 마'. Each column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source and contact information.